

# 산림 1만4222ha · 시설 463곳 불 타...여의도 면적 49배

## 강릉서 86세 여성 대피 중 사망...“원인 조사” 건조한 대기·강풍...여의도 49개 넓이 숲 불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 산림 피해가 1만4222ha로 늘었다. 시설 피해도 463개소로 늘어났다. 메마른 대기와 강풍 탓에 불길이 잡히지 않으며 물적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기준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다. 전날 강원 강릉 옥계면에서 86세 여성이 대피 도중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산불과 사망 사이 연관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주민은 4664세대 7374명으로 늘었다. 불길이 잡히지 않으며 전날 오후 11시 기준 3704세대 6231명

보다 1143명 더 늘었다. 지역별로 울진·삼척 4133세대 6482명, 동해 380세대 717명이 대피한 상태다. 이들 중 885세대 1075명은 마을회관,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재해구호협회·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은 구호 및 방역물품 6만3000여 점과 급식차 8대를 지원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138차례 실시했다. 산림 피해는 1만4222ha로 추정됐다. 울진·삼척 1만1661ha, 삼척 656ha, 동해 63ha, 강릉 옥계 12ha 등이 불에 탔다.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49배에 달한다. 축구장 면적(0.714ha) 대비 1만9918배에 이른다. 중대본 집계 시점을 기준으로 전날인 5일

오전 6시 3300ha, 오후 3시 6352ha, 오후 11시 1만2021ha, 6일 오전 11시 1만4222ha로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재산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포함한 시설물 463개소가 소실됐다. 전날 오후 11시 330개소 대비 133개소 늘어났다. 현재 중대본이 지자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정상 상태를 유지 중이다. 산불이 원전 경계선 안까지 번졌지만 필사의 방어로 원전 주변이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송전망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울 1~5호기 출력을 50%로 낮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대응인력을 538명 추가 투입해 원전과 삼척 화력발전소 등 안전을 챙기고 있다. 송전선로 총 14개 중 4개를 정지하고 있다. 울진과 강릉 각 2개씩이다. 현재 송전선로 인근 산불 감시를 위해 한전 지원을 포함한 19명

이 배치돼 있다. 강원 삼척 호산리 LNG 기지 쪽에도 불이 번졌지만 대용량 방사포 등을 투입해 방어하고 있으며 아직 시설 피해는 없다.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의 대활산불 차단을 위해 진화헬기를 비롯한 산불특수진화대 80명을 집중 투입했다. 해군 1함대 탄약고에서도 함대와 소방대가 화마 방어선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불길을 막고 있다. 천연기념물 향나무, 용장교회, 강원 동해시 삼화사 삼층석탑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돌봄사업단을 파견하고 사전 살수조치를 마쳤다. 교육부도 산불화재 인근 지역학교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학사 일정 조정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등교를 중단할 방침이다. 통제됐던 고속도로·국도는 정상화됐다.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42번 국도 백봉령-7

번 국도 분기점,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동해 고속도로 옥계IC~동해IC 양방향 소통이 재개됐다. 다만 KTX 등 영동선 동해~강릉 구간 철도는 전날 낮 12시부터 현재까지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동해행 KTX는 현재 강릉역으로 시·종착역을 변경한 상태다. 정부는 전날부터 이승우 중대본 차장 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세 차례 열어 산불 대비태세와 피해 현황을 살피었다. 정부는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인력은 1만6042명, 장비는 헬기 89대, 소방차 681대를 비롯한 총 834대가 투입됐다. 소방청은 가능한 역량을 최대로 동원해 울진, 동해 민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이날 오전 7시께 일출 직후 헬기 90여대를 투입해 큰 불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백남진기자



**‘봄햇살에 활짝 핀 분홍매’** 맑은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제주시 오라2동 월경사를 찾은 시민들이 활짝 피어난 분홍매를 감상하며 봄햇살을 즐기고 있다.

## “애들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해”...시민들 선관위 ‘무능’에 분노

###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대상, 바구니·종이박스 투표봉투...“허술”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명성·준비성에 대한 유권자의 질타가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당초 선관위는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도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후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투표를 마친 확진자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아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후기부터, 투표함이 부실하거나 투표사무원이 참관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투표 봉투를 열어봤다는 등의 후기가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쇄도하고 있다. 한 SNS 이용자는 “확진자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용지 교부했다. 대리 투표가 가능한 것”이라며 “기표 후 직원들이 마구잡이로 수거하던 데 제대로 투입하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도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지 발급. 이중, 반복 투표 가능한 것인가”, “간이 신

원확인서만 작성하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 안 하네요”, “동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보다 철저히 합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투표함으로 바구니, 종이박스, 소풍백 등이 사용돼 불안하다는 후기도 줄을 이었다. 한 SNS 이용자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회송용 봉투가 담겨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확진자들 사전투표하는데 투표함이 없고, 바구니가 투표함이라고 선관위에서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이게 사전투표 투표함이라고? 믿을 수 없다”, “바구니에 담아 투표함으로 가서 봉투 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라고 해도, 투표소마다 회수 방식과 회수함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둘째 날 당일에는 한 40대 여성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제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소식에 대해 한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 모두 무효 처리하라”, “선관위는 대체 하는 일이 뭐냐?”, “쌍팔년도 아니고 부정선거라. 코로나가 벌써 몇 년째인데 무능한 것 아닌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 차원의 규탄도 이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에 대한 허술



하고 준비성 없는 선거 관리로 20대 대선 신뢰성 훼손한 선관위 강력 규탄한다”며 “본 투표일인 9일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3월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함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때문에 별도 투표함을 설치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물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